

주일 1부 예배

너를 지키시는 이 (시편 121:1-8)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무엇이 안 되어지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태어나면서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언약”이다. 이것 외에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이 소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끝에 가보면 그건 소망이 못된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언약은 한 점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지만 하면서 계속 연속되어진다. 이것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이다. 기도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누리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정말 간단하다. 몇 가지 단어만 알면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 언약, 증인”이다.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 그게 언약이다. 이 언약을 누리면 증거는 나타난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인생에 줄 서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답을 얻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답이다. 처음에는 잘 안되는데 계속 하면 증거가 반드시 오게 되어있다.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 그러면 인생이 해결되고 답 난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면 인생이 어렵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 언약을 두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이다.

▶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고쳐면 된다. 응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을 내게 심고 계속 누리는 것이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의 모든 문제는 그냥 두어라.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내가 네게 준 답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고 거기에 있

어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 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다. 조그마한 일은 내가 해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언약 잡으라는 말이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 웬만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 때 문이다.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계속 해서 터지면 결국 문제 해결만 하다가 죽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 막는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가진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1.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에 틀림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케 하지 않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릴 지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잡은 언약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인간이 만든 위성도 우리 집 앞에 돌맹이를 보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히 우리를 보고 계시겠는가? 이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손대지 못한다는 말이다. 조건은 딱 하나! 그리스도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2. 나, 교회, 현장

▶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찾아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 올해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찾고 그제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 또 하나는 평생을 누릴 현장이다. 우리의 기본이자 정체성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참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삶의 이유, 현장을 발견해야 한다. 나는 왜 이교회를 다니는지 질문 해 본적 있는가? 왜 나는 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가?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 답이 나야 하겠다. 나는 이런 이유로 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이 교회에 나간다. 나는 이 이유로 복음 전한다. 답 나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답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영권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근본 영권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또 내게 있는 현상이 무엇인가 눈 뜰 때 새롭고 구체적인 영권이 나온다. 사실적인 것이고 이것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 있으면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되어있다. 반드시 승

리하게 되고 안 되면 사단이 공격할 때 상당히 방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평생 거의 방향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 우리 교회, 렘넌트 소중하중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아닌가? 또한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 눈이 열려야 한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위하여 그리스도를 매일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맘이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승리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응답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서밋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내 노력 없이도 승리하는 인생! 본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노력하겠지만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목표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에 잡혀 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경쟁하지 않도록 이기는 인생!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경쟁자였던 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생이다. 세상 위에 있는 인생이다. 이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신자들이 거의 모른다.

신명기 6:10-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신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는가? “너도 하나님께로 오면 그렇게 된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는 안 오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든다. 그게 죽는 길이다. “너는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을 것이요. 네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짜로 얻을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이것 뿐이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이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아름다운 집, 성읍, 깊은 우물이 필요하냐? 포도원이 가지고 싶냐? 그럼 내게로 들어와. 성경에서 늘 반복적으로 늘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이다.

▶ 오늘 이것을 바꾸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심어놓은 시스템이다. 이것 따라 가면 약속대로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너는 내가 준 증거를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가 내 축복을 땅끝까지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번 주간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실 줄 믿는다.

# 2017년 10월 1일 임마누엘 남가주교의 주간메시지

1부 예배 (임마누엘 1부)

## 세계군선교대회4강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선교의 비밀 (창39:1-6)

◆서론

▶군선교하는 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전도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렘넌트 요셉을 어디에 보내셨는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의 집으로, 군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다. 군대의 제일 우두머리인 보디발이 여호와의 알도록 만든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군선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그랬다.(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언약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힘을 얻고 사명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해서 전세계에 일어나는 흑암세력을 결박해야 한다. 오늘 군선교의 시작을 보겠다.

1. 외로움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군선교

▶하나님이 라헬을 미리 불러가서 요셉을 외로움 가운데 몰아넣었다.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가장 첫 번째 군선교의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달은 요셉 한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축복하시니 구나! 왜 군선교인가? 군 안에 있는 흑암세력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오늘 모든 나라의 군에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2. 위기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군선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기속으로 몰고 가셨다. 왜냐? 세계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정치를 변화시키셨다. 요셉이 있는 감옥속에서 장관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전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다.

▶군선교는 전쟁과 관계있다. 여러분 한명의 기도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군선교사 여러분을 통해서 출애굽, 출비벨론의 역사, 로마를 정복한 것과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3. 핍박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제자를 찾아 세우며 세계복음화, 군선교

▶아무리 막아도 진짜 제자는 핍박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일으켜 세워서 군선교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길에 전쟁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다.

◆결론

▶이번 선교대회 이후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1)전교회가 군선교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  
2)전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전교회가 군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언약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이다.(마6:33, 행1:8)  
▶오늘 군선교대회는 끝나지만 군선교는 시작이다.

(임마누엘 2부)

### 여호와와의 신에 감동된 자 (창41:38)

◆서론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예수 이단 짝은 바리새 교회→ 2000년 재앙 주범  
2)중세 교권→ 세계 전쟁의 주범  
3)복음 막는 현대 교회들→ 후대 재앙의 주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총회가 되어야 하느냐?

1. 전쟁과 재앙을 막을 여호와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오직 복음으로 여호와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1)렘넌트 7명으 보라.

2)비벨론에서 포로되어간 인물 중에 보라. 단6:10, 다니엘은 세 왕을 움직였다. 다니엘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3)롬16장 사람들을 보라.

2.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어릴 때부터 여호와와의 신에 감동된 자는 세계를 움직일수 있다.(창37:1-10)

2)부모의 기도가 담겨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야 된다.(창37:11)

3)절대로 경제, 성공, 유희, 사람들의 많은 압력에 속지않고 완전히 초월된 인물이 나왔다. 그 인물이 요셉이다. 이런 인물들을 키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 어떤 총회가 되어야 하는가?

1)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이 살아났다. 이런 인물을 말한다. 심지어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밭에도 복을 주었다.

2)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억울하게 누명쓴 사건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옛날에 말하다가 당한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를 살린 것이다.

3)장관을 살렸다.

4)왕을 살렸다.

5)총리가 되자마자 세계를 살렸다.

▶가문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한다.

어려움과 질병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결론- 내가 갖출 것

▶여러분이 갖출 것은 영적인 힘이다. 어떤 영적인 힘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여호와와의 신”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딱 하나, 내가 요셉과 함께 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여호와와의 신으로...이 언약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두시간만 누려도 승리한다. 그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한다.